

새터민 가정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아산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7월부터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 '두리하나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탈북 트라우마, 경제적 어려움, 문화 차이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양천구는 새터민 밀집지역으로 서울시 새터민 인구의 15.7%인 1,112명이 주로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쯤 되면 그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법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이효연 팀장은 새터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오랜 고민 끝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마을'이라는 뜻의 '두리하나마을 사업'을 기획했다.

두리하나마을 사업은 이웃 주민이 새터민 가정의 멘토가 되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양천구의 여러 기관이 협력해 새터민 가정을 지원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으로 2019년 아산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새터민 아동에 주목하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을 기획하면서 새터민 아동에 주목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 새터민 가정 대다수가 탈북과정에서 가족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이 부모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동 문제는 아동만 돌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나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다.

한 예로 어머니와 함께 탈북한 중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후 정식결혼 없이 한 남자와 살면서 남동생을 낳았고, 이후 그 남자와 헤어졌다. 남들은 한 번만 겪어도 힘들었을 일을 여러 번 겪어 혼란스러운 데다 어머니와의 대화도 쉽지 않으니 중학생이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가까운 이웃이 버팀목이 되어주다

2019년 7월 두리하나마을 사업이 시작됐다. 우선 양천구에 사는 주민을 멘토로 교육한 후, 새터민 가정의 부모와 아이에게 1:1로 이어줬다. 자연스레 정서적인 안정을 얻도록 한 것이다.

이효연 팀장은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웃이 멘토가 되도록 기획했다”며 “속내를 터놓을 친구가 있다면 새터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새터민 부모와 아이가 각자 자신의 멘토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익혀가도록 했다. 그러자 먼저 새터민 가족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는 방증이었다. 멘토들은 새터민의 형제·자매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약 9개월간의 멘토링 이후 설문 조사를 해보니, 사업 초기보다 새터민 가정의 정서 및 사회적 고립감은 11%나 줄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한 새터민 어머니는 “아버지가 알려줘야 했을 이차 성징과 같은 교육을 멘토가 대신해줘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내성적이었던 한 새터민 아들은 멘토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점차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지역아동센터 부회장이 되기도 했고, 마음이 맞는 새터민과 멘토는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새터민 가정에 온기를 불어넣다

두리하나마을 사업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은 ‘가족소원캠프’로 새터민 가족끼리 가고 싶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다. 장소, 날짜, 교통편 등을 정하며 부족했던 가족 사이의 대화가 채워졌고, 여행지에서 추억도 쌓다 보니 가족 관계가 부쩍 좋아졌다.

‘가족소원캠프’는 몇 개월간의 멘토링을 통해 부모와 아이 각자에게 좋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다녀오게 했다. 덕분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가족소원캠프’를 통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새터민 이혼 가정의 부모가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바랐으나 여러 사정으로 미루기만 하던 가족사진을 찍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생겼다면서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이외에도 새터민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양육 차이와 훈육방식을 배웠다. 또 심리치료가 필요한 새터민 가정은 전문가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도와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새터민 가정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새터민을 보호할 울타리를 세우고 싶었다. 이효연 팀장은 “새터민 가정은 법적으로 초기정착을 돕는 5년이 지나면 이들을 지켜보고 지지하는 장치가 없다”며 ‘남북하나마을 울타리’ 프로그램이 탄생한 과정을 설명했다.

“양천구에는 새터민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많지만, 각 기관의 기능이 분산되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야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양천구의 여러 기관을 모았고, 그게 남북하나마을 울타리예요.”

2021년 1월, 남북하나마을 울타리에선 ‘찾아가는 학교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새터민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선 새터민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교사들이 뜻을 모았다. 남북하나마을 울타리의 첫 결실인 ‘찾아가는 학교 사업’은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두리하나마을 사업을 통해 새터민 가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두리하나마을 사업의 경험이 다른 지역사회에 공유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날을 꿈꾸고 있다. 📍 글 김혜진



아동 멘토와 멘티가 만나 클레이를 이용해 옆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있다.